

제7주 해체주의란 무엇일까? (데리다와 해체주의)

1) 생애 및 사상개요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유대계 출신의 프랑스인으로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1935~1941 사이에 엘-비아르에서 반유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다 쫓겨났다. 1943년~1947년 동안에 벤 아쿠논 리세로에 재입학하여 불규칙한 학업을 받는 동안에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 1947년 바칼로레아(대학교 입학시험) 시험에 낙방하였다. 한 동안 그 여파로 불안과 부적응을 겪으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일기와 독서에 몰두하면서 시를 썼다. 이 시기에 앙드레 지드, 니체, 폴 발레리에 한동안 심취하였다. 1948년 고등사범학교를 준비하면서 뷔고 리세르로 옮겼다. 이 무렵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이후 1949~1950년 사이에 루이 르그랑 리세에 입학하였다. 1951년 말에는 몇 번 낙방한 고등 사범학교에 재입학 하였다. 여기서 부르디외, 세르, 마랭 등과 만나게 되고, 1952~1953년 고등사범학교 시절 당시에 조교였던 알튀세를 알게 되었다. 그와 친교를 맺고 20년간 동료관계를 유지하였다. 1950년~1960년대 대학교의 교수시절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의 환경 속에서 보냈다. 1953~1954년 루벵을 여행하면서 석사논문인 「후설철학에서 생성의 문제」를 작성하였다. 그는 후설 현상학을 프랑스에 소개한 최초의 인물 중의 한명이었다. 푸코와 친교를 맺고 그의 강의를 듣는다. 1955년 철학교수 자격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듬해에 합격하였다.¹¹⁶⁾ 요컨대 그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건너와 일찍부터 혁신적인 사상으로 명예를 누렸다. 데리다는 30대 초반에 레비나스와 함께 파리에서, 그리고 현상학과 해석학 본부에서 리피르와 함께 현상학을 연구했다.

2) 텍스트주의의 해체

데리다는 1967년에 출간한 세 저서 『글쓰기와 차이』, 『목소리와 현상』, 그리고 광범위한 저작 『그라마톨로지』에서 문자이론에 대해 영향력 있는 책을 출판한다. 데리다는 이 책들을 통해 후설의 현상학, 소쉬르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비판을 가한다. 이 책들에서 데리다는 철학적 전통과 현재의 철학적 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으로서 해체를 이용한다. 데리다는 이 과정을 통해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탈구성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해체는 이유를 묻는 대신에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또한 모든 연구의 영역을 끊임없는 텍스트의 일부분으로 파악한다. 해체는 어떤 근원에 도착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결구조 속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해체는 최종적인 원인 설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해체주의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지 않으며, 개념에 관한 의미전이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데리다는 동의하지 않는다. 언어의 이중적 의미는 이미 그 자신의 텍스트에서 다시 다른 텍스트를 참조한다. 여기서 데리다는 구조주의 음성학에서 기원하는 차이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인다. 데리다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이다.¹¹⁷⁾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음성중심주의로서의 서구의 로고스중심주의를 폭로한다.¹¹⁸⁾ 데리다의

116) 양운덕, 「데리다」, 박정호 외역음, 『현대철학의 흐름』, 동녘 2004, 343-343쪽.

117) 클라우스 비거링, 유봉근외 옮김, 『매체윤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25-126쪽.

118) 클라우스 비거링, 유봉근외 옮김, 앞의 책, 127쪽.

헤체프로그램은 그의 사상형성기에 영향을 준 현상학적 사상가, 즉 후설과 하이데거의 이론에 근본적인 빛을 지고 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데리다는 자신이 다음과 같이 현상학에 빛을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나의 철학적 구상은 후설과 하이데거, 그리고 헤겔의 사상에 상당한 빛을 지고 있다. 하이데거는 아마도 가장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리스 형이상학을 극복, 해체하려고 하는 그의 기도는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가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아주 힘들게 연구했던 후설은 나에게 문제를 설정하고 푸는 데에 있어서 방법론적 신중성과 보류, 그리고 엄밀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나는 현전의 형이상학에서는 후설과 파토스(pathos)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 현전의 개념과 그것이 철학에서 수행한 근본적인 역할을 의심하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후설의 방법이었다. 하이데거와 나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다.”¹¹⁹⁾

위 인용문에서 데리다가 후기 후설과 하이데거로부터 방법론적 영향을 받았으나 그들의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헤체의 방법은 데리다가 현전(現前 presence: logos)의 형이상학이라 부르는 것과 관계가 깊다. 데리다는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설의 현상학에서 직접적으로 확실한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동의하지 않는다. 후설의 경우에 있어서 순수표현형식에 대한 고찰은 동시에 직접적으로 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탐구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전하고 자신에게도 현전함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하고 엄밀한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러한 현전의 가능성을 부정한다.¹²⁰⁾ 현전의 형이상학에 대한 순수직관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여 근본적인 기점을 찾고자 했던 후설의 실패는 곧 형이상학의 종말을 의미했다. 데리다는 후설과 같은 서구철학의 부류가 비이성에 대한 이성, 차이에 대한 동일성, 부재에 대한 현전을 진리근거로 주장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데리다는 이성, 동일성, 현전에 대비되는 비이성, 차이, 부재라는 타자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¹²¹⁾ 후설은 최후의 저작인 『선험적 현상학과 유럽학문의 위기』(1936)에 대한 토론을 실은 부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의 꿈은 이제 사라졌다.” 즉 이 저서에서 후설은 직접 경험의 선험적 주관의 세계를 사실상 문화적 생활과 세계의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초시간적인 본질을 직관하기 위한 현상학적 탐구가 데리다의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데리다는 하이데거와 더불어 해체운동은 확실한 전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²²⁾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1927)에서 출발에서부터 서구 형이상학을 ‘존재 신학적(Ontotheological)’ 편견이라 부른다. 즉 그는 존재에 대한 우리 경험의 시간적·역사적 성격에 반하는 체계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이데거 자신은 여전히 몇몇 근원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존재 신학적’ 전통철학의 골격을 복구할 수도 있었던 존재라는 낱말은 그 허위가 폭로되었다.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적 독본을 서구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여전히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데카르트, 칸트, 헤겔,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을 로고

119) 데리다, 대륙사상가와의 대화: 리처드 커니, 임현규 외 옮김, 「자크 데리다」,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한울, 1992, 154쪽 재인용.

120) 마단 사립 외, 임현규 옮김, 「데리다와 헤체」,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7, 22쪽.

121) 양운덕, 「자크 데리다」, 박정호외 엮음, 『현대철학의 흐름』, 동녘, 1996, 347쪽.

122) 리처드 커니, 임현규 외 옮김, 앞의 책, 154-155쪽.

스중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면 데리다의 ‘로고스중심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이 용어를 ‘현전의 개념에 그 중심을 두고 재현되는 서구 사상의 경향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했다. 데리다의 현전은 하이데거가 사용한 Anwesen이라든가 Anwesenheit의 독일어의 번역어이다. 데리다는 현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전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존재 이해의 단서가 된다. 존재란 지속적인 현전성 안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다.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이성중심적인 형이상학의 연장이라 간주하고, 하이데거가 현전의 은유학(Metaphorik des Präsenz)과 목소리의 현재(Gegenwart der Stimme)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²³⁾

지속적인 현전성의 이해 속에는 언제나 시간의 한 양태인 현전이 얽혀 있다. 과거나 미래도 모두 현전의 변화된 양태에 불과할 뿐이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곧 당도할 현재이다.¹²⁴⁾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후설의 관점을 빌어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¹²⁵⁾고 말한다. 따라서 데리다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순전히 낱말적인 의미에서 현전으로서 존재자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로 정의했다. 이러한 논리중심주의의 대상은 “기초·원칙·중심과 연관된 모든 용어들, 즉 형상, 아르케, 본질, 목적, 실체, 진리, 주관, 의식 초월성, 인식, 신, 인간 등 변화지 않는 주제로 삼는 형이상학을 특징으로 한다.¹²⁶⁾ 하지만 데리다는 형이상학적 사유에 빠지도록 만드는 물질/정신, 주관/객관, 허위/진리, 육체/정신, 텍스트/의미, 내면/외면, 표상/현전, 현상/본질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버리도록 제안한다.¹²⁷⁾ 그래서 데리다는 중심화 하는 현전의 개념이 결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로고스중심주의’와 단절할 것을 제의한다. 그는 원래의 현전이라고 하는 지배적인 범주를 그 자신의 부재 또는 그것의 보충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¹²⁸⁾

데리다는 모든 근원적 현전의 개념을 탈중심화 하기를 시도한다. 자유로운 작용의 판도라 상자(Pandor's box)를 열면서,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그는 이것을 ‘산종(散種: dissemination)’의 과정이라 불렀다. 산종을 나타내는 불어 *la semence*는 라틴어의 ‘semen’에서 나왔고, 이것은 다시 ‘의미하다’를 뜻하는 희랍어 ‘semainein’과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언어학에서는 의미소를 뜻하는 씨뿌려진(*semé*)이라는 과거분사와 연결되어 있다.¹²⁹⁾ 산종은 기표(signifiant) 과정을 어떤 출발점과 종결점을 동시에 환원함으로써 결코 종결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기호로부터 무한한 이동을 드러낸다. 무한한 연쇄 고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다른 것이 대신하는 이러한 무한한 기호의 작용을 통해서 데리다는 비중심(non-centre)적인 것을 긍정한다. 예를 들어 사적/공적, 남성/여성, 같음/다름, 이성/비이성, 참/거짓, 중심/주변 등 쌍으로 이루어진 용어들에서 첫 번째의 용어는 특권을 누린다. 여기서 데리다는 후자의 대립 쌍 중에서 해체를 통해 역전과 대체를 할 것을 요청한다. 이

123) 페터 지마, 김혜진 옮김, 『데리다와 예일학과』, 문학동네, 2001, 63쪽.

124) 이광래, 「데리다의 反철학으로서의 철학」, 서양철학사 연구회, 『反철학로서의 철학』, 지성의 샘, 1994, 69쪽.

125) Jacques Derrida, *La voix le pheénomane*, Puf, 1967, 3쪽.

126) 이서규, 「데리다: 해체와 차연」, 『현대철학의 이해』, 건국대출판부, 2003, 205쪽.

127) 마단 사립외, 임현규 옮김, 앞의 책, 27쪽.

128) 리처드 커니, 앞의 책, 156쪽.

129) 이승중, 「차연과 차이: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1998, 44쪽.

것은 현전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중심과 다른 것이다. 즉 의미는 본래의 현전을 제공해주거나 표상하지는 않는다. 현전의 개념 자체가 바로 의미작용의 결과물이다.

데리다의 입장에서 기표는 언어 이외에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기의(signifié)에 대한 은유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의 그 자체는 다른 기표에 대한 언급 또는 연기하는 것으로 기표가 될 수 있다. 언어 이외에는 어떤 전거도 없다. 그것은 단지 텍스트밖에 없다. 심지어 후설이 강조하는 “사상 자체” 마저도 이제 더 이상 직접적으로 경험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사상 자체 “라 부르는 것은 기호이며 언어의 결과물이다. 데리다가 선호하는 해석학은 ‘언어-내적(intra-linguistic)’ 인 것이다. 즉 해석학은 사상(Denken)들보다 해석들을 이해한다. 결국 데리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 순간부터 기호를 제외하고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기호 안에서만 생각한다. … 우리는 무제한의 작용, 즉 존재신학과 현전의 형이상학의 파괴로서 초월적 기의의 부재를 노래할 수 있다” 130)

3) 로고스중심주의와 음성중심주의

종종 데리다는 우성파괴주의자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기존의 서구 철학이 주장해온 모든 진리를 우상이라 보고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망치를 들고 형이상학을 깨뜨리는 철학자라 불리는 니체의 후예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우상을 현전의 형이상학, 또는 로고스 중심주의라 부른다. 데리다는 플라톤 이래로 지속되어 왔던 서구 형이상학의 경향을 ‘로고스중심주의’라는 것이다.¹³¹⁾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 신약성서의 경우처럼, 모든 것의 기원으로서의 로고스, 말은 완전한 존재를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모든 것은 유일한 원인에서 생기는 결과이다.¹³²⁾ 다시 말해 로고스 중심주의란 말이나 이성적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의미한다. 플라톤 이래로 지속되어 온 로고스중심주의는 결국 어떤 절대적인 체계나 진리를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중심이라는 것 혹은 절대적인 진리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해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해체란 어떠한 중심도 없고, 비록 중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 즉 무한한 기호의 대치만이 적용되는 일종의 비 위치만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실상 이러한 로고스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 시대의 사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종교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근대 인식론도 자연 과학의 이념으로 표현된 플라톤주의이다. 더욱이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는 플라톤 이래로 지속되어 온 서구의 합리주의 정신이 제도화되어서 나타난 사회라 볼 수 있다.

서구 형이상학에서 로고스중심주의적 편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중의 하나는 ‘글쓰기(writing: gramme)’ 에 대하여 ‘말(speech: phone)’ 에 우선성을 부여한 것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말에 우선성을 두는 것은 바로 현전에 대한 가정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것을 음성중심주의라 부른다. 즉 서양철학은 언제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음성중심주의였다. 말은 그것이 현전에 더 가깝

130) 리처드 커니, 앞의 책, 156쪽.

131) 양운덕, 「자크 데리다」, 박정호외 엮음, 『현대철학의 흐름』, 345쪽.

132) 이광래, 「데리다의 반철학으로서의 철학」, 서양철학사연구회, 『반철학으로서의 철학』, 지성의 샘, 1994, 70쪽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말은 직접성을 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글에 대해 우선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데리다에게 있어서 음성중심주의는 현전의 결과 중의 하나이다.¹³³⁾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서구 형이상학에 관찰되고 있는 음성중심주의를 문제 삼는다. 음성중심주의는 말과 글(쓰기)를 구분하고 글(쓰기)에 음성, 말에 특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이는 음성을 일차적으로, 기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데리다는 음성에 최우선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형이상적 전통을 의문시하고 그러한 사고틀이 숨겨진 모순들을 폭로하고자 한다.¹³⁴⁾ 여기서 형이상적 전통이란 신성불가침한 토대, 제일원인, 혹은 절대적인 기원들을 가정하여 다른 의미의 체계가 그것에 의존해서 구성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유체계를 일컫는다. 데리다는 생생한 음성을 완전하게 필사한 서양 알파벳에 의한 글(쓰기)는 로고스의 진리를 음성적인 것에서 소리와 의미가 명료하게 통일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말을 글(쓰기)보다 편애하는 로고스 중심주의의 편견을 보여준다. 데리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의 경우를 들어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편견이 서양 철학사 저변에 퍼져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듯 데리다가 종종 언급하고 있는 로고스중심주의는 음성중심주의(phonocentrism)인 것이다.¹³⁵⁾ 데리다에 의하면 로고스중심주의는 음성중심주의로 발전해 간다. 음성적 언어를 평가 절상하고 문자적 언어를 평가절하는 것이 음성중심주의이다. 이러한 음성위주의 언어관은 형이상학 시대의 일반적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음성은 근대의 주체 철학이 언어의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루소의 시대에 정점에 달한다. 신은 음성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듣는다. 외면화하면서 내면화되는 음성은 정신의 자기 체험이 일어나는 특권적 현상이다. 정신은 음성을 통하여 직접적인 자기현전, 무매개적 자기관계를 경험한다. 주체철학에서 정신은 진리가 내재하는 장소이며 의미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그래서 정신은 음성을 통하여 자기 합일적 일치에 당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의미자체와 합일하는 충만한 현전성을 이룬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음성은 좋은 언어, 고마운 언어, 축복의 언어인 것이다.¹³⁶⁾

데리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직접성의 ‘음성 중심적’ 이념에 가장 근접해 있는 모델은, 공유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있는 두 화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우이다. 비록 더 이상 자신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두 화자가 대화에서 그들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 그 의미는 여전히 ‘현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일화는 자신에게 화자의 직접적 현전으로서 “영혼과 그 자신과의 침묵의 대화”에서 표현한 플라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믿는다: “진리는 여전히 순수 자기 직접성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소외와 혼란이 개입되지 않았다. 침묵의 대화에서 의미는 아직도 자신과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존재가 말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아는 순수한 하나의 진리성을 주장할 수 있다.”¹³⁷⁾

반면에 플라톤은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아 대

133) 마단 사립외, 임현규 옮김, 앞의 책, 23쪽.

134) 양운덕, 「자크 데리다」, 박정호외 역음, 『현대철학의 흐름』, 369쪽.

135) Jacques Derrida, *Grammatologie*, Übersetzt von Hans-Joerg Rheinberger und Hanns Zichler, Frankfurt. a. M. 1983, 25쪽.

136) 김상환, 「정보화시대의 헤체론의 이해」, 김상환외 저,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105쪽.

137) 리처드 커니, 앞의 책, 158쪽.

자아라고 하는 대화는 타자에게 자아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직접 음성중심주의 모델과 결별하면서, 글(쓰기)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의미를 드러낸다. 기호로 각인된 의미는 원저자의 의도에 대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그것은 원래의 자기현전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것은 처음의 자기현전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정립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글을 부모살해범으로 비난한다. 쓰여진 기호는 본래 그들을 낳았던 부모를 죽여 버리는 불법적 자손과 같다. 데리다는 『산중』에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Phaedrus』에서 글(쓰기)에 대한 적대적인 평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교한 해체적 분석을 시도한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에서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는 독약(pharmakon)”¹³⁸⁾이라 진술한다. 이 진술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즉 “글(쓰기)은 독이다”와 “글(쓰기)은 약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 두 의미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결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전통철학은 전자를 정확한 의미라고 결정하였다.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글(쓰기)은 말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플라톤은 쓰여진 글들의 이러한 불법성에 대하여 구어(口語)의 특성을 대비시킨다.

“다른 종류의 말, 즉 말이 글쓰기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리고 또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가문의 아들이지만 합법적인 적자이다. 나는 영혼에 각인된 지적 대화를 원한다. ... 쓰여진 말이 단순히 모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살아 있는 말을.”¹³⁹⁾

플라톤은 자주 파르마콘(Parmakon: ‘치료제’라는 뜻과 ‘병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매한 낱말)이란 용어를 글(쓰기)의 속성에 결부시켰다. 즉 플라톤은 글(쓰기)을 파르마콘이라고 불렀는데 약과 질병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인데 글쓰기는 이러한 모순을 동시에 가진다. 파르마콘이라는 말은 속죄와 정화를 위해서 희생된 ‘속죄양’을 의미하는 파르마코스(pharmakos)에 관련된다. 또한 파르마콘이라는 용어는 약학이나 마법을 의미하는 파르마케아(pharmakeia)에 관련된다. 그리고 보레아스(Boreas)의 신화에 오리시아(Orithyia)가 같이 놀았던 처녀의 이름에 해당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북풍의 여신의 신화에 관련짓기도 하였다.¹⁴⁰⁾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파르마콘의 이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만일 파르마콘이 이중성을 띠는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 기인한다. 즉 그것이 상반자를 상반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상반자를 결합시키거나, 역전시키거나, 한 면을 다른 면과 교차시키는 작용의 운동(육체/정신, 선/악, 내부/외부, 기억/망각, 말/글쓰기 ... 파르마콘은 차이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차이성의 차연이다.”¹⁴¹⁾

글(쓰기)은 화자의 의도를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글쓰기는 화자의 의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글(쓰기)을 말보다는 하위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은 로고스라면, 문자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말은 화자의 현전 속에서, 즉 화자가 실제로 존

¹³⁸⁾ Platon, Paedros, 274e.: Derrida, *La dissémination*, de Seuil, 1972, 82쪽.

¹³⁹⁾ Derrida, *La dissémination*, 99쪽.

¹⁴⁰⁾ 휴 J. 실버만편, 윤호병 옮김,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 사상』, 현대미학사, 1998, 15쪽.

¹⁴¹⁾ Derrida, *La dissémination*, de Seuil, 1972,

재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직접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글(쓰기)의 의미는 다른 것과의 비교나 해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자기 스스로 현전하는 것이라면, 문자는 항상 타자의 흔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라는 것도 플라톤의 생각처럼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것이 못된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발화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 낱말이 ‘치료제’와 ‘병균’ 둘 모두를 의미하는 애매한 말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플라톤에 있어서 글(쓰기)은 화자의 원래 의도에서 신뢰성의 바탕이 되는 자기에의 현존을 제거시키는 나쁜 병균으로 취급하였다. 그것은 화자의 원래 의도에서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게 하여 잘못에 노출시킴으로써 의미를 저자 외부에 놓아둔다. 그러나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치료의 역할도 한다. 의미가 저자의 의도와 똑같이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망각에서 다시 회상되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지적한 것처럼, 플라톤적 형상(Eidos)의 자기동일성은 회상(anamnesis)으로써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이다. 글쓰기는 직접적 자기현전으로서 말을 소외시키는 ‘병균’인 동시에 원래 표현되었던 그때 그 장소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치료제’이기도 하는 이중역할을 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형상’, ‘로고스’와 같이 가장 중요한 초시간적인 현전의 범주들이 사실은 그 반대되는 가치와 상호공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플라톤적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한다. 부재, 차이성, 다수성, 거리성으로 대표되는 글에 대하여 현전, 동일성, 통일성, 직접성으로 나타나는 말의 음성중심주의적 우위를 주장한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말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재한 원래의 현전을 재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글을 필요로 한다. 파르마콘으로서 글(쓰기)은 돌이킬 수 없는 반대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 외부의 눈에 보이는 표지 또는 쓰여진 기호로 구체화됨과 ‘동시에’ 영혼에서 잊었던 진리를 환기시켜주는 구원의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신과 대화의 관계에 있는 영혼의 보이지 않는 내면성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4) 차연 작용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1968년 행해진 “차연(La Différance)”이라는 강연에서 신조어를 사용한다. 데리다는 어떻게 차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플라톤이 언급했던 동일성의 위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데리다가 주장하는 형이상학의 공통된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형이상학에서 자기 동일성을 갖춘 최초의 원인과 최종의 원인을 철학적 공리로 설정하고 이 원인에 의해 세상의 복잡한 존재물이 파생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그는 이원론적 대립구조를 통해 이 세계를 파악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일차적 원인과 이차적 파생물들이 단순히 대립적 관계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사이의 선악 그리고 우열의 위계적 가치 질서, 더 나아가 지배와 종속이라는 권력 질서를 설정한다. 즉 철학은 그 학파에 따라 용어와 개념사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형이상학체계에는 현존·직관·본질·있음·의미·진리·의식·주체·초월·내부·말 등 일차적 근원적 가치로 특권화하고, 그에 비해서 재현·공간·시간·경험·외부·차이·분열·역사·타자·물질·글씨 등을 이차적 파생물로 폄하하여 배제하는 것이었다.¹⁴²⁾ 데리다가 나열하는 대립들은 기표/기의, 감각 가능/인식 가능, 글쓰기/말, 말함/언어, 통시성/공시성, 공간/시간, 시간/능동과 같은 개념들이다. 데리다가 헤겔, 후설, 하이데거, 플라톤, 칸트 및 형이상학의 모든 전통

142) 윤효녕, 「데리다:형이상학 비판과 해체적 주체 개념」, 『주체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2003, 16-17쪽.

에 까지 귀속시켰던 시간과 기호 등의 현상학적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주관성의 관념을 요구한다.¹⁴³⁾ 여기서 데리다는 이원적 대립과 위계의 가치질서를 만들어 낸 “현존의 형이상학 내지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 하고 **차연과 혼적**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부각시킨다. 데리다의 *différee*라는 라틴어 어원을 지닌 프랑스어 디페랑스(*différance*)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닌다. 첫째는 어떤 것을 구분하다 또는 분리하다의 뜻이며, 둘째는 어떤 것을 연기하다 또는 변경하다의 의미를 포함한다.¹⁴⁴⁾ 이렇게 데리다는 종종 ‘차연(差延: difference)’ 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함으로써 차이남(*differing*: 각각의 기호가 다른 그것과 구별됨)과 연기됨(*deffering*: 끝없는 기호의 연쇄가 몇몇 원래의 소기에서 연쇄의 끝을 연기함)으로써 이중적인 글쓰기의 기능을 지시한다. 프랑스어 ‘*différer*’ 는 이 두 의미를 지니고 있다. 로고스(*logos*: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모아주는 자기 동일성으로서)에 대한 우위성의 부여는 차연 작용에 의해서 그 기반이 무너진다. 차연을 뜻하는 불어 단어 *différence*는 공간적 차이 내지 거치를 의미하는 *deffer*(다르다)와 시간적 차이 내지 지연을 의미하는 *defer*(지연시키다)를 합쳐서 데리다가 새로 만들어낸 단어이다. 큰 철자 *a*를 틀리게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가 암시하는 비동일성과 차이를 부각시킨다. “글자 *a*로 인하여 *différance*가 더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고전적 언어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차이성의 근원 내지 생산 작용, 차이성 사이의 차이성, 차이성의 작용(유희)과 같은 것이다.¹⁴⁵⁾ 요컨대 *différance*는 발음상에서 어미 ‘*ance*’ 와 ‘*ence*’ 는 프랑스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은 차이는 단지 글(쓰기)에서만 드러날 뿐이다. 혼적(*trance*) 역시 동일성 속에 각인된 근원적 타자성을 일컫는 용어로 현존의 자기 동일성을 해체한다. 즉 혼적의 존재나 의식의 현존성을 산산이 부수는 변별적 타자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차연과 같은 기능을 한다.¹⁴⁶⁾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용어들은 정확히 하나의 특정한 의미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는 대신에 반대자들을 세우고 그 토대를 약화시키는 두가지 이상의 의미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정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연은 연기와 차이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보충은 증가와 대치를, 파르마콘은 ‘치료제’ 이자 ‘병균’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로고스중심주의적 사유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혼적’의 말소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다.

데리다는 서구 형이상학의 양자택일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결정불가능성’으로써 혼적의 개념을 정립한다. 양자택일의 이 논리는 이원적 흑백논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에 근거한다. 즉, ① 동일률(A는 A이다), ② 모순율(A는 비A가 아니다), ③ 배중률(진리는 A이거나 비A이다)이 그것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이원적 양자택일의 논리를 해체적인 양자긍정은 양자부정의 논리로 무너뜨린다고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특정한 어떤 결정된 개념을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혼적으로 해체한다.¹⁴⁷⁾ 따라서 이것은 자신과 모순되며, 자신과 다르며, 그리고 말소에 의해 작용한다. 데리다는 철학사의 텍스트 안에 ‘결정불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43) 존 레웰린, 서우석·김세중 옮김,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8, 77쪽.

144) 이서규, 앞의 책, 211쪽.

145) Jacques Derrida, "Différance" (1968), *Speech and Pheomena*, trans. David B. Allison (Evanston: Northwestern UP, 1973), 130쪽.

146) 윤효녕, 앞의 책, 19쪽.

147) 리처드 커니, 앞의 책,

“그것은 더 이상 이원적 반대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그 이원논리에 저항하고 그것을 해체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제삼의 용어를 정립하지도 않으며, 사변적 변증법의 형식에서 이에 대한 해결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르마콘이라는 용어는 치료제도 병균도 아니며, 선도 악도 아니며, 글도 말도 아니다. ... 양자부정은 동시에 양자택일이다.¹⁴⁸⁾

데리다가 언급하는 해체는 플라톤으로부터 후설과 리피르에 이르기까지 서양 형이상학의 여러 유파들에 대한 비판이다. 데리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형이상학이란 일정한 유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 데카르트의 사유주체, 루소의 자연의 말씀, 헤겔의 관념론의 절대 인식, 후설 현상학의 의식주체와 직관, 하이데거의 존재자, 영미철학의 언어 분석 등 현전의 형이상학을 주창해 온 서양 전통 철학의 모두를 포함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전략은 바로 그러한 총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해체의 전략이다. 그의 철학은 전통적인 철학의 담론에서 무시하여 왔던 영역에 눈을 돌린다. 그리고 그는 저자의 서명에서부터 인용·문장·표현·방법·실수 등 갖가지 여백의 장소를 비철학적 담론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그는 주변의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텍스트의 결정적인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실 텍스트는 그러한 여백이 없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일종의 게릴라적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총체적 대항이 아니라 주변부의 국지적인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하여 중앙 권력의 결점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상 중앙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공백이 생겨난다. 모든 지식이나 사상, 나아가 사회적 제도는 체계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체계성 속에 있는 중심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중심으로 짜인 체계가 기존의 사상 체계인 것이다.

데리다의 주장에 의하면, 말하는 의도는 ‘다른’ 때에 ‘똑같이’ 되풀이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사실에 있다. 결과적으로 ‘반복가능성(reiterability)’으로서 정의될 수 있는 동일성의 개념은 글쓰기와 읽기라는 차이 나게 하는 작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데리다의 입장에서 현전은 자신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현전은 항상 연기되어 있다. 그것은 원점(arche)이라기보다는 종점(telos)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관점은, 우리는 결코 이 종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에 대한 음성중심주의적 선호에 의해서 은폐된 영혼의 자기 현전성은 쓰여진 기호로 구체화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전에는 차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성중심주의적 편견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은 이렇게 말이 글(쓰기)로 표현됨으로써 차이성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 단지 회의(懷疑)하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차연 작용’이 말의 고유한 것이라 주장한다. 즉 말은 각 개별적인 낱말 또는 말해진 기호가 처음부터 기표하는 음성과 기의된 개념으로 구분되는 한에서 차이성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다.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어떤 고정된 중심도 거부하고 잠정적으로 정해진 위치들만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유로운 공간의 창출은 모든 것들이 고정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가변적인 위치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쉬르의 언어이론을 통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다. 언어는 ‘변

¹⁴⁸⁾ Jacques Derrida, *Position*, Minuit, 1972, 99쪽.

별적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놀이이다. 문자는 다른 문자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진 위치일 뿐이다. 때문에 어떠한 기호도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타자가 아님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성은 타자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런데 소쉬르는 일단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의미는 고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소쉬르의 모순이 나타난다.

데리다는 『말하기와 현상』에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언어분석이 이미 말이라는 것에 대해 개별적 의미소의 집합이라기보다는 그 기호들의 차이성의 체계라는 것을 밝혔다. 소쉬르는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는 그 스스로 무엇을 지시할 수 없고, 단지 자신과 다른 기호와 의미의 분기 또는 차이를 만듦으로써 지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말해진 기호의 의미는 그 기호들 사이의 차이성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직접적인 자기현전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을 수 있다. 즉 소쉬르 언어이론의 출발점은 언어기호는 사물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가 사물에 대한 이름이라면 언어에서는 항상 지시해야 할 사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언어가 지시해야 할 사물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쉬르는 언어기호와 지시체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기호들까지 언어가 지시체와 무관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¹⁴⁹⁾ 소쉬르는 언어학의 대상을 물리적·심리적·신경 생리적·역사적 사실로서의 언어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현상이라 보았다. 반면에 데리다는 문자학의 대상을 소쉬르와는 다르게 사회적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언어와 관계된 모든 사실, 즉 물리적 심리적·신경 생리적·역사적 사실까지도 포함시켰다.¹⁵⁰⁾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나게 하는 구조를 무시했을 때에만 현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grammatology)』이라고 부르는 비로고스중심적 언어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언어학은 과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객관성’은 이미 현전으로 보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적 차이성을 가정하는 ‘반복 가능한’ 현전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그라마톨로지』는 텍스트의 해체적 읽기에 과학적 객관성의 이념을 자기모순이라 배척한다. 데리다는 이것을 “신중한 텍스트 분리의 실천 또는 연습”¹⁵¹⁾이라 말한다. 그런데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는 단지 언어와 논리에 관한 규범적인 개념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모든 규범적인 실재에 대한 이해를 해체한다. 해체는 형이상학적 관념론뿐만 아니라 실재론도 붕괴시킨다. 그것은 실재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이해가 그 자체에 정의하고 설명하는 기표적 담화에 의하여 구조화된다. 또한 모든 의미가 차이가 나게 하는 기표의 작용으로서 원초적 글쓰기에 의해서 미리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하여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를 자기해체로 이끌어 낸다. 따라서 그의 『그라마톨로지』는 회의주의의 성격을 띤다. 그래서 ‘실재’와 ‘의식’ 모두가 경험적인 ‘객관적’ 근거를 갖거나 선천적인 ‘주관적’ 의도의 환상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의미작용의 구성물을 갖는다. 『그라마톨로지』는 언어에 선행하지도 않으며 언어의 배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언어의 이중적이며 끝없이 무한한 언어의 산중전략을 분석한다. 그가 로고스중심주의적인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구상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데리다는 음성중심주의적 모델에 대한 비판을 서구 현전의 형이상학에 의해서 견지된 다양한 로고스중심주의적 편견을 다음과 같이 확장시킨다.

149) 한상철,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철학과 현실사, 2001, 23쪽

150) 한상철, 같은 책, 50쪽.

151) Jacques Derrida, *Position*, Minuit, 1972, 3쪽.

첫째, 자기에게 의식된 것과 다른 어떤 것을 현전시키는 기준으로서 이성과 지각에 인식론적 우위성(epistemological primacy)을 부여한 것은 기호의 작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위성은 마음과 실재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실재론적 진리개념과 자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현전하는 의식으로서 관념론적 진리개념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과거와 미래의 지평과 결별하고, 일련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의해 초시간적 현재에 부여된 연대기적인 우위성(chronological primacy)에 나타난 로고스중심적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은 ① 유한한 육체에 대하여 불멸의 영혼을 형이상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며, ② 영원·불멸의 동일성으로서 선천적 형식을 정립하는 것이며, ③ 초시간적인 현재로서 신의 개념(Nunc Stans)이 그것이다.

셋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별적(sexual) 우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에서 ‘남성중심주의(phallogo-centric)’ 적 성격이라고 부른다. 남근(phallus)은 자기자립성과 자기동일성의 상징으로서 간주되었다. 남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충진적인 현전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결핍되어 없다는 것은, 여자라는 존재는 무엇이 모자라는 존재, 결핍이 항상 그에게 붙어 다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여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정체성이 있으며 남성은 남성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지닌다. 그리고 성의 정체성은 애초에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이러한 도식적 구분은 일종의 로고스중심주의가 낳은 폐단이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강한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체계의 결과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여성성의 발견은 새로운 논리의 창출일 수 있다. 반대로 강한 여성이 남성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립적 여성의 목표를 설정하는 여성운동은 남성 지배 중심 사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로고스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존재의 부재와 생성의 차이성은 분명하게 반대되는 순수 자기현전으로서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우위성(ontological primacy)을 지닌다. 이러한 현전의 존재론적 우위성은 모든 형이상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의 계보는 자기 자신과 침묵 속에서 대화하는 플라톤의 유명한 영혼의 모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데리다는 이러한 억압의 전략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한다. 데리다의 해체 프로그램은 최근의 문이론과 관련하여 종종 논의된다. 데리다의 사유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해체적 비평’이 그 전위 서클에서 반드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¹⁵²⁾ 데리다는 동시에 어떤 일종의 로고스중심주의적 확실성을 다른 종류의 것으로 치환시키려는 시도를 피한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해체(deconstruction)의 생소한 용어들 즉, 차연, 원초적 글쓰기, 흔적(trace), 보충(supplement), 양피지(palimpsest), 말소(erasure), 언어중심주의(logocentrisme), 문자(criture), 차연(différence), 산중(dissimulation), 반복(repetition) 등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해체 전략을 위해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적 용어를 ‘결정불가능’한 것으로 전개해 나간다.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절대적으로 현존하는 진리나 로고스를 분해하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중심을 해체하려는 이유는 그러한 로고스중심주의가 가지고 오는 폐단 때문이다. 그 폐단이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나 신체 혹은 문화 전반에 침투해 있다. 무엇보다 그의 해체 전략은 타자성을 인정하고 차이의 논리를 해방하는 것이다.

152) 리처드 커니, 앞의 책, 164-165쪽.

차이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타자를 포함한다. 차이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것도 자신 속에 타자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타자의 흔적이 곧 자신이다. 이러한 시각을 극대화해보면 타자성의 논리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명확해진다.

5) 영향과 의의

데리다가 현 시대의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로서 군림하게 된 측면 하나는 거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측면이다. 해체론은 2000년 전동의 서양 사상사를 총체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사상사적 천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고전적 문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실천해 나갔다. 미시적 엄밀성을 보여주는 데리다의 장인적 글 읽기와 글쓰기는 문학에서 건축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문헌 해석의 새로운 경지를 새롭게 개척했다. 그의 해체론의 충격은 그 목표의 거대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세밀함이 빚어내는 효과인 것이다. 해체론의 첨단성도 이 두 측면의 성공적 결합에 있다.

데리다는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던 전통적 철학의 범주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였다. 그의 영향력은 철학을 넘어서 문예비평, 사회학, 정치이론, 심리학, 인류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철학 자체 내에서 데리다의 해체전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의가 분분하다. 그의 저작의 핵심중의 하나는 서구 사유에 있어서 ‘로고스중심주의적’ 편견의 증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중심점을 갖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는 이러한 중심점으로부터 모든 것을 환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모호한 정식화와 고정된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이름이 붙여지기를 거부하는 데리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확고한 주의나 주장을 내세웠다기보다 기존의 전통과의 대결을 통해 해체적 전략을 내세워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정립하고자 했다.